

곡성군 '귀농인의 집' 문 활짝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올해 5개소 추가 “체계적 교육 운영 제공 통해 활성화 앞장”



곡성군은 우리군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인들이 주택을 마련하고, 농업기반시설을 구입하기까지 임시 거주처를 제공

유치 목표로 작년까지 2,224명이 곡성군에 정착하였다. 귀농인들의 거주실태 현황 조사결과 2017년도 89%로 높은 정착률을 보이는데 이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임시 거주처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정착 준비를 돕는 귀농인의 집이 큰 역할을 했다고 군은 평가했다. 아울러 곡성읍에 있는 체험센터에서는 우리군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에게 1박 2일, 2박 3일 동안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귀농의 집과 함께 귀농인들이 귀농귀촌 정착지로 곡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의 증가는 농촌의 활력 증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 귀농인의 집 추가 조성 및 체계적인 귀농·귀촌 교육운영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귀농·귀촌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곡성=김광휘 기자

강진산 뽕잎과 우리쌀로 만든 뽕잎 막걸리 인기

소갈증(당뇨병)·동맥경화에 효능 탁월

강진군 도암주조장(대표 박병현)에서 생산한 뽕잎 막걸리가 웰빙 주류로 각광 받으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뽕잎 막걸리는 뽕나무의 뽕잎을 건조 후 250℃~300℃에서 20분 볶아서 녹차와 같은 방법으로 8일간 발효시켜 종전의 텃밭한 맛을 배제해 맛이 시원하고 숙취가 적은 게 특징이다. 특히 원료곡으로 강진군 도암면 간척지에서 직접 생산한 강진쌀, 뽕잎, 지하 200m에서 끌어올린 깨끗한 물 등 좋은 재료를 이용해 전통기법으로 기능성 막걸리를 생산해 내고 있다. 예로부터 뽕잎은 각기병과 몸이

붓는 증세, 소갈증(당뇨병), 뇌졸중, 동맥경화 등에 효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막걸리의 효소와 궁합이 맞는 대표적 식물이다. 도암주조장 박병현 대표는 “제대로 된 술맛을 내기 위해서는 원료를 아깝게 생각해서 안 된다.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더욱 더 제품 개발에 힘써 차별화된 제품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친환경농업과 송승연 과장은 “전통적 기법과 지역에서 나는 쌀을 원료로 정성들여 만든 뽕잎 막걸리가 지역 특산품을 넘어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제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암주조장 뽕잎쌀 막걸리 0.9L는 1,000원, 1.5L는 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곡성군, 여성농업인 대상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곡성군은 지난 2일 곡성문화센터 동아아트홀에서 여성 농업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감염병 예방 교육은 당초 보건소 중심의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농업인 등 고위험군 대상 교육 비율이 낮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영농교육과 연계하여 여성 농업인을 농업현장의 중간 교육자로 양성하는 특화된 교육체계 구축을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날 교육에서는 진드기매개 감염병 표준자료를 활용한 예방관리요령을 안내하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음·면발 진드기매개 감염병 발생추이를 보여주며 감염병 예방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군 관계자는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을경로당에서 동영상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교육·홍보용 전단지 및 기피제, 도시 등을 배부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영암도기박물관, 생활도예교실 수강생 모집

영암군 거주 성인 대상 기초도예강좌 운영...23일까지

영암도기박물관은 5일부터 23일까지 도예강좌 생활도예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도기빛기에 관심 있는 영암군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모집인원은 15명 이내이며, 참가신청은 방문접수(신청순)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3개월과

정도로 운영하며, 도예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한편 생활도예교실을 이수한 수강생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도예동아리 회원으로서 지속적인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생활도예교실은 박물관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민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



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영암도기박물관 관계자는 “편안하게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가꾸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영암=조대로 기자

목포시,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 본격 추진

2019년까지 43억 투입 안전 시설 구축·주거환경 개선



목포시가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송도마을은 목포역 뒤편 내항과 국제 여객터미널 사이에 있는 동명동 77계단 인근 앞반의 위험 절개지 위에 위치한 목포의 대표적인 취약지역이다. 총면적은 1만4,547㎡이며 현재

149호에 27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등의 보급률이 낮아 주거환경이 취약한 송도마을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간담회, 워크숍, 현황 설문조사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11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이어 지난 1일 최종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총 사업비 43억원(국비 33억원, 지방비

10억원)을 투입해 안전·재해방지 기반시설 구축, 생활취약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등 5개 분야 22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사업은 진입도로와 위험옹벽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진행된다. 시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주민커뮤니티센터를 마련하고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주거 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남 김치마을 등 전남도청서 직거래 장터

해남 김치마을과 땅끝송도마을에서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전남도청 운선도홀에서 설맞이 정보화 마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북평면 동해리 김치정보화마을은 두륜산 자락의 청정한 자연 환경과 유서깊은 마을 역사를 자랑하는 곳으로 북은지를 비롯한 김

치와 고구마, 토하전, 감 등 10여개 품목을 판매할 계획이다. 동해마을의 특산물인 맛좋은 배추로 만든 김치와 천연미감이라는 브랜드로 출하는 고품질 단감 이 특히 인기상품이다. 땅 끝 송도 정보화 마을 (<http://songho.invil.org>)에서도 직

접 기른 농수산물을 설명절 선물로 출시했다. 청정한 땅끝비대에서 키운 싱싱한 전복과 고소한 재래식 돌김, 멸치 등 수산물과 함께 해남 특산물인 호박고구마 등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송도마을 특산물인 빨전복은 유기질이 풍부한 갯벌에서 자라 단단한 육질과 단맛이 나는 식감이 일품으로 최고의 보양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확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마름길을 열어줍니다” 湖南新聞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